

공감

행복한 날 퇴골 소식지
vol. 4 / 2019. 6.



2019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활동! 특색 있는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과 행사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날뽕골음악단 하모니카

2019년 1월 ~ 6월

날뽕골음악단 오카리나

2019년 2월 ~ 5월

마을갤러리 운영

2019년 2월 ~ 6월

수공예동아리 생활자수

2019년 4월 ~ 6월

마을문화해설사 역량강화교육

2019년 2월 ~ 5월

벽화동아리

2019년 4월 ~ 6월

날뽕골음악단 민요

2019년 4월 ~ 7월

원예관리사

2019년 4월 ~ 6월

한지공예

2019년 4월 ~ 6월

마을부엌 프로그램

2019년 6월

다육아트 지도사 양성반

2019년 4월 ~ 5월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

2019년 4월



날뽕골음악단 하모니카수업



마을갤러리 운영



마을문화해설사 역량강화교육 - 시 낭송



날뽕골음악단 민요수업



한지공예수업



다육아트지도사양성반



날뽕골음악단 오카리나수업



수공예동아리 생활자수수업



벽화동아리 현장활동



원예관리사수업 현장활동



마을부엌 프로그램



제4회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

골목은 살아움직입니다. 어제와 같은 날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틔우는 식물과 스스로 기쁨을 나누는 사람의 정성,
꽃보다 아름다운 달성토성마을입니다.

달성토성은 달성공원의 원래 이름입니다. 소중한 국가지정 문화재로 사적 제62호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달성토성은 대구시민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 뿌리로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삼한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지나 근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대구를 지켜온 달성토성, 그 주변에는 항상 마을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을 품은 마을과 사람들!

골목의 가치가 퇴색하고 있었습니다. 가옥 구조와 주변 환경의 현대화로 인해 골목의 존재가 잊혀 있던 2015년 봄, 집 안에 있는 화분을 대문 밖으로, 골목에 꺼내놓고 함께 보자는 작은 움직임이 달성토성 마을(비산2·3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참여하는 주민이 많아졌고, 골목마다 꽃향기가 번졌습니다. 빛바랜 골목에 생기를 불어넣은 꽃향기는 우리 마을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문화를 꿈꾸는 전국의 수많은 마을과 단체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을씨년스런 겨울 풍경 같았던 골목이 봄처럼 화사해졌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주민들의 표정이 달라졌고, 멀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서구와 대구광역시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도시재생의 과제를 안고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전국의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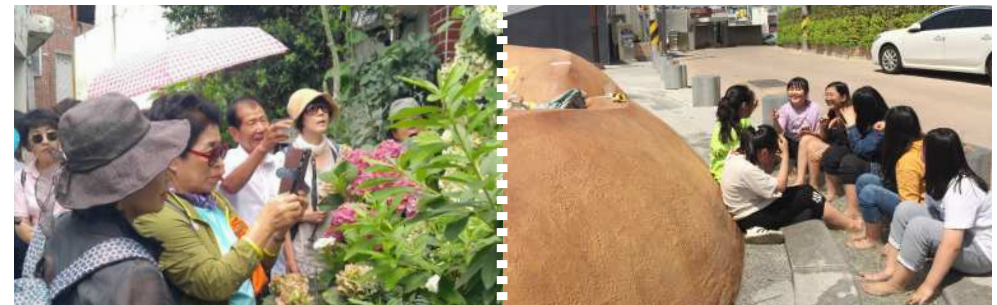
골목은 살아움직입니다. 어제와 같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틔우는 온갖 식물과 스스로 기쁨을 나누는 사람의 정성으로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 골목입니다. 달성토성마을 골목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에 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꽃보다 아름다운 달성토성마을입니다.



골목을 걸으면 행복합니다

해설사 김 영 숙

골목마다 각양각색의 화분에서 저마다 맵시를 뽐내고 있는 식물들이 가득합니다.
계절마다 색이 바뀝니다. 매일 단장을 하니 어제와 같은 오늘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주민과 손님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습니다.
골목에는 주민이 직접 그린 벽화가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듯 조금씩 조금씩 그려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달성토성마을에는 골목정원과 벽화가 있어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주민이 만드는 우리 마을. 해설사 활동으로 함께하고 있어 행복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빛을 발하는 다락방

황 명 순

요즘 달성토성마을다락방 3층 카페에는 많은 손님들이 다녀가십니다. 골목정원을 취재하러 온 언론사의 기자들도 들리고, 초등학생들도 삼삼오오 찾아와 책을 읽곤 합니다. 다락방 옆에 있는 역사마당은 동네 어린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놀이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카페까지 시끌벅적합니다. 사람 사는 향기가 번집니다.
다락방이 동네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 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달성토성마을골목정원과 골목축제 등의 영향이 서서히 빛을 발하는가 봅니다.
지금 다락방 카페에는 제4회 골목축제 사진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가 레지던시 공간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원을 주제로 한 정원예술가 창작공간입니다. 기대가 큼니다.

제4회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

이 무 찬

축제 당일, 수천 명의 손님이 우리 마을을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이룬 우리 주민은 어깨에 힘주고 다닐 자격이 있습니다.
달성토성마을 으랏차차차!

매년 봄, 망울을 터뜨리는 봄꽃과 더불어 여기저기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그 한가운데에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27일 오전 11시, 달성토성공영주차장. 개막식에 맞춰 중앙무대 앞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식전공연이 흥을 돋우고, 스크린에서는 실시간으로 퍼레이드 장면을 내보냅니다. 잠시 후 주민 대표들이 올라가 축제의 개막을 알립니다.

두 달 전, 축제 조직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획팀을 꾸렸습니다. 마을 국민운동단체마다 부스 운영을 준비하고, 중앙무대와 골목버스킹무대를 빛내줄 주민을 찾습니다. 회의가 거듭됩니다. 기획 프로그램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한 달 전, 축제 당일 교통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면서 손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어디를 가나 삼삼 오오 모인 사람들이 축제 이야기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준비할 게 많아집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올해도 다양한 기획 및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퍼레이드, 별을 밝히다, 달벌성주, 둘레길농장, 키다리아저씨, 유튜브 실시간방송, 놀이터, 동민노래방, 골목버스킹, 축제사진공모전...

축제 하루 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각종 안내 현수막을 다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축제장 내, 인근 골목, 인근 도로... 찾아온 손님들이 더 많이 보고, 더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마지막까지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축제 당일! 각지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손님이 우리 마을을 다녀갔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준 주민들 덕분에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의기투합했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람된 하루를 선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는 하루, '우리'가 이루어 낸 축제입니다. 우리 주민은 어깨에 힘주고 다닐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는 대구광역시 우수마을축제로 선정이 되었고,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수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달성토성마을',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를 검색하면 끝을 볼 수 없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달성토성마을을 향해 주민 모두가 힘 없이 달려갈 겁니다. 달성토성마을 으랏차차차!

제4회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 사진공모전 수상작

달성토성마을 주민 178명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최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 조직위원회 / 후원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



최우수상 노상권



우수상 김경린



우수상 이준영



장려상 신재홍



장려상 최재영



장려상 박동현



장려상 권해중



가작 신종호



가작 안동연



가작 김승희

정겨운 사랑방, 달성토성마을온실

신 경 남

골목 안, 숨은 듯 조용히 자리를 잡은 달성토성마을온실은
식물을 위한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크고 작은 농가에서 다양한 규모의 온실을 볼 수 있지만, 도심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수목원의 온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도 그런 온실이 생겼습니다. 골목정원과 더불어 또 다른 볼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달성토성마을온실입니다.

온실에는 커피나무를 비롯해서 몽키바나나가 재롱을 부리며 탐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몽키바나나를 보니 ‘대프리카’라는 표현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실에는 여러 종류의 다육아트 작품과 미니 화분을 전시하고 판매합니다.

골목정원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온실의 역할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에는 각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큰 화분들을 옮겨 보관하면서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온실 앞 작은 공터는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의 쉼터가 됩니다.

골목 안, 숨은 듯 조용히 자리를 잡은 달성토성마을온실은 식물을 위한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정겨운 공간입니다.
가고 싶고, 오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곳... 바로 달성토성마을온실입니다.



꼼지락꼼지락, 다육아트체험과 수업

이 향 자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드는 달성토성마을,
다육이체험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흙을 만지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달성토성마을다락방에서 다육아트 수업을 듣는 동안 다육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집에서도 다육화분 두세 개를 키우긴 하지만 다육이의 특성과 유의점들을 몰라서 오래 키우지 못하고
말려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꼼지락꼼지락...
작고 귀여운 다육이를 조심조심 만질 때면, 내 마음과도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따금 골목정원투어 손님들의 체험에 동참해서 접하곤 하다가, 이제 ‘다육아트 2급 지도사’ 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으니, ‘다육이를 접하는 자세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육이를 통해 삶의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정겨운 달성토성마을.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다 보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달성토성마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추억을 만드는 명소가 되어 훗날 다시 또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예쁜 다육이체험도 가능하니, 체험 후 예쁜 가방에 사랑도 가득 담아가셨으면 합니다.
흙을 만지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향수를 떠올리게 됩니다. 소중한 추억이 생겨납니다.



시를 따라 걷는 달성토성마을골목정원

詩

해설사 김 연 희

달성토성마을골목정원을 걷다보면 예쁜 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골목 한쪽 구석에 있는 단지나 기와조각, 작은 돌 심지어 문패 옆에도 시詩가이 적혀 있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투어를 하면서 '우리 마을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그 장소에 알맞은 시를 낭송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기획팀의 탁월한 선택으로 시낭송 프로그램이 봄부터 생겨 우리 해설사들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경상도 특유의 억양과 이중모음 발음, 호흡 조절 등을 고치고 배우는 데에 애를 먹었습니다. 시구詩句에 알맞은 표현도 곁들여 해야 하니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몸이 오그라든다고나 할까, 닭살이 돋는다 할까? 그러나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의 열정과 격려로 많은 좋은 시를 접하고 발성연습도 하면서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 결실로 지난 4월 27일 서문 앞에서 벌어진 '제4회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 프로그램 중에 해설사들이 무대에 올라 처음으로 시낭송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노래에 맞추어 수화 공연까지 거뜬하게 해 내었습니다.

무대에 서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개별로 또는 단체로 모여서 틈만 나면 연습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공연을 함께한 동료 해설사 여러분이 너무나 고맙고, 누구보다도 시낭송에 대해 백지 상태였던 우리에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시극을 기획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서도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서툴고 미숙하지만 사투리 억양이 들어간 시낭송이나 사투리가 섞인 시낭송이면 어떨까, 멀리서 우리 마을로 구경하러 오는 방문객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오르고, 잔잔한 감동을 전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민요 - 우리의 소리로 찾는 행복

민요반 이영애

민요民謠는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서 구음口誦으로 전해지는 노래이며, 우월함에 젖은 클래식도 아니고 상업주의에 물든 대중가요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얼이 깃든 마음이고 삶의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나 어릴 적에는 왜 어른들은 '노세 노세'를 찾나
"늪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저러니깐 못살지 하면서, 외면했는데
이제 나이를 들어보니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는 받치여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날리리야 날리리야
니나노 열사줄아 열시구 좋다
벌 나비는 이리저리 펴 펼쳐 꽃을찾아서 날아든다"

속상한 일은 맛있는 삶에 양념이라 생각하고 여유를 갖고 쉬엄쉬엄 살면, 더 큰 에너지가 되어서 즐겁게 잘살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환경에 속해 있어도 흥을 내고 노래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민요교실은 달성토성마을다락방 2층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천사처럼 예쁜 선생님의 열강으로 수강생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한민족의 뿌리'인 전통민요! 그 속에는 멋 · 흥 · 한이 담겨 있지요.
잘 배워서 우리의 소리를 널리 알리고 봉사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행복을 나누어 드릴게요.
행복한 날외골 만들기예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가요!

달성토성풍물패! 2020년 축제를 향해~

김 동 화

달성토성풍물패입니다.

2016년 제1회 때부터 2019년 제4회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 때까지 다른 동네 풍물패를 불러 흥을 돋우곤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풍물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축제가 끝날 때마다 '우리도 풍물패를 만들자.'는 말이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3월 주민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했고, 풍물패가 결성되었습니다.

매주 채비공방에 모여 오형우 선생님과 함께 20여 명의 학생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2020년 제5회 축제가 되면, 여전히 부족하겠지만 주민과 손님들 앞에 서서 첫 무대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는 오형우 쌤께 감사드리고, 장소를 제공해 주신 채비공방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달성토성풍물패 여러분, 파이팅!

골목에 생겨난 우리 마을 주차장

이 근 석

골목 안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우리집. 애시당초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내 집 앞 주차'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우리집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수십 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은 공간입니다.

안 그래도 좁은 길, 길옆에 주차된 차들 때문에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먼저 주차한 사람이 임자가 되었던 곳, 밤 늦게 아이가 아파도 자동차가 있는 곳이 멀거나, 이중주차 때문에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이곳에서 키우셨고, 나 또한 이곳 달성토성마을에서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던 마을이었지만, 주민들의 참여와 행정력의 지원으로 마을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골목에서 피어난 하모니카 소리

최 혜 정

지난 4월 27일,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 골목버스킹.

작은 무대에 고운 옷을 맞춰 입은 주민이 올라갔습니다. 작은 하모니카를 들고... '쿵짝짝~ 쿵짝짝~' <오빠 생각>을 필두로 <섬마을 선생님>, <고향무정> 장단에 맞춰, 주민들과 한마음이 되어 하모니카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웅기종기 모여 앉은 주민과 손님들의 박수 소리가 골목에 가득했습니다.

하모니카 수업 쫑파티, 그리고 새로운 출발

김 말 주

2019년 상반기 하모니카 수업이 끝났습니다. 무의미하게 지나갈 뻔했던 시간을 하모니카 수업 덕분에 알차게 보냈습니다. 그 기쁨을 만끽하고자, 간소하게나마 쫑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사하구에서 우리 골목정원을 보러온 분들에게 작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골목정원을 가꾸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마을에 오신 분들에게 더 많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작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모니카 수업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는 곳, 우리 달성토성마을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마을

달성토성마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마을,
달성토성마을을 소개합니다!

대구 서구 비산2.3동, 달성토성마을이라고도 합니다. 별 모양의 달성공원(토성)을 품고 있는 마을입니다.
달성토성과 함께 **대구의 2,000년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마을**이지만, 1980년대 이후 섬유산업 쇠퇴와 함께 점점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그립습니다

하나둘 생겨난 빈집은 관리가 되지 않아 폐가가 되었고, 젊은 사람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노인만 남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넘는 초고령화 마을...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키우던 화분을
골목으로 꺼내었더니...

그런데 2015년 봄,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있던 화분을 골목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집으로, 골목에서 골목으로 이어졌습니다.** "00야~, 니도 화분 꺼내 놔라. 혼자 보든 뭐하노? 같이 보면 더 좋다 아이가?" 점점 참여하는 주민이 많아졌습니다.



골목정원을 찾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골목이 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골목정원! **달성토성마을에는 골목정원이 있습니다.**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이며 신문사에서 취재를 오고,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마을이며, 학교며, 기관 등에서 줄지어 방문했습니다.



축제를 열었습니다,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

찾아오는 분들에게 더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2016년 봄, 제1회 달성토성마을골목축제가 열렸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축제를 통해 **매년 5,000명 이상의 손님이 골목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동네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생기다니...

비산2.3동은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관광, 손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관광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고, 이 사람들이 어데서 왔노? 사람들이 와 이래 와싼노?" 얼떨떨, 어리둥절했던 주민들입니다.



주민자치선도공모사업 최우수동,
대구시 우수마을축제 선정!

주민들 중에서 골목정원 해설사를 뽑았습니다. 주민으로 구성된 축제조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16 대구시 주민자치선도공모사업 최우수동, 2017 대구시 우수마을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대구시장님이
직접 행기는 달성토성마을!

대구시장님이 올해 축제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입니다. 시장이 좀 바쁩니다. 그래서 동네축제에는 잘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 달성토성마을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멋진 동네로 만들어 주이소."



횡단보도춤마당, 버스킹...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마을

대구에서는 최초로 '횡단보도춤마당'을 열었고, 작은 무대를 만들어 버스킹 공연도 네 번이나 펼쳤습니다.
손님과 주민을 위한 마을지도도 만들었습니다. 구청 버스를 대절해서 아이들과 함께 진해 해군교육사령부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별 모양의 달성토성과 꽃을 담은 달성토성마을 상징물(로고)을 만들었습니다. 행복날외골공방을 만들었고, 교육·강의·회의를 할 수 있는 주민 공간으로 '달성토성마을다락방'도 만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도 만들었습니다.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소극장도 생겼습니다. 작은 경로당이 6개로 늘어났습니다. 함께 쓰는 부엌도 생겼습니다. 겨울에 화분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온실도 생겼습니다.
폐가는 마을텃밭으로 바뀌어 청소년들과 함께 가꾸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미래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달성토성마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마을! 모두에게 똑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나, 비산2.3동에 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아이들의 웃음 소리로 동네가 시끄러운 날이 다시 오기를...

발행처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일

2019. 7. 20.

만든 사람들

김동화

김말주

김연희

김영숙

박분남

신경남

이갑연

이근석

이무찬

이영애

이향자

최혜정

황명순

도움 주신 분들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

달성토성마을협동조합

편집 및 디자인

협동조합 대구문화창작소

달성토성마을골목정원 탐방 안내

오붓하게 걸을 수 있는 골목정원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마을해설사와 함께

골목정원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문의 :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

